

“자취생 월 고정지출비 130만원 이상… 청년도약 엄두 못내”

금융권, 청년도약계좌 내달 출시
尹 대통령 대선 공약·국정과제
매월 40만원~70만원, 5년 만기

5년간 5000만원 목돈 만들지만
정작 2030 대상자들은 ‘부담’

금융위 “가입자, 긴급자금 필요때
계좌 유지, 수요 해결방안 찾는 중”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5년간 500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정부의 의도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긴 시간과 월 납입액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만4000원
3600만원	70만원	50만원	4.6%	2만3000원
4800만원	70만원	60만원	3.7%	2만2000원
6000만원	70만원	70만원	3.0%	2만1000원
7500만원	70만원	70만원	3.0%	2만1000원

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두고 대상자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중인 직장인 A씨는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밥값, 교통비, 핸드폰요금, 주택청약, 적금이 나가면 청년도약계좌에 넣을 돈이 없다”며 “70만원이라는 돈이 청년들에게는 큰 액수로, 최소 금액인 40만원 저축하려고 금리가 낮은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중인 직장인 B씨도 “자취생들은 월세를 포함한 한 달 고정비용만 130만원이 넘게 나가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

고 중도 해지 할 경우 시중은행과 비슷한 이자액을 받게 되는데 정책상품이라는 이점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고 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상품이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실제 문재인정부 당시 정책상품이던 청년희망적금 역시 중도 해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10개월 사이 45만4000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해지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예치기간은 2년, 월 납입액은 50만원으로 윤 대통령의 청년도약계좌보다 예치기간과 납입액이 적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보다 부담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으로, 정책 첫 해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안 등을 찾아보고 있다”며 “계좌유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국의 작년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인도에 추월당했다. /AP·뉴시스

인구 1위 추월… ‘인구 보너스’ 시대 막 내리나

● 차이나 뉴스&리포트

40년간 경제성장 가장 큰 기반 ‘인구’
인건비 상승, 美中갈등 등 악재 겹쳐
‘세계의 공장’ 타이틀까지 ‘위태’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작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니 지난달 말에는 인도에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경제성장의 호황을 가져다 준 가장 큰 기반은 인구였다. 이미 많이 오른 인건비에 팬데믹, 미국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세계의 공장’이란 타이틀도 인도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유엔 경제사회화(DES)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도 인구가 14억2577만 5850명이 되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유엔인구 기금(UNFPA)은 올해 중반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앞당겨졌다.

1949년 중국의 인구는 5억4200만명으로 인도보다 50% 이상 더 많았다. 인구 역전의 원인은 이후 이어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이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강조한 마오쩌둥 시대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1976년 10억명에 달했지만 다음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 다며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35년 동안 엄격하게 시행된 한 자녀 정책으로 출생아수 감소 효과는 약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중국의 인구는 작년 14억1180만명으로 집계돼 6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매년 1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은 지난 2016년 폐지됐지만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작년 여성 1인당 1.2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인도 인구는 2064년까지 40여년 동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 관계자는 “중국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급세기 말 이전에 10억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인도 인구는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값싼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중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0년 전 3483위안에서 2021년 8903위안(미화 1287달러)으로 올랐다. 2021년 기준 인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만7017 루피(미화 208달러)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 역시 중국이 38.4세로 인도보다 열 살이나 많다.

중국 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라며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김건희 여사 패션 화제… 의류中企 ‘웃음꽃’

과감하고 화려한 색상 매치
브랜드 가리지 않는 착장에
‘따라하고 싶은 패션’ 떠올라

패션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등장
수제화 매장엔 방문자 10배 늘어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패션업계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역대 영부인들과 비교될 만큼 광복 행보를 이어가는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통령실 사진 뉴스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다. 방문처에서 한 말과 만난 사람은 물론, 입고 든 패션까지 완판 행렬을 이어가자 특히 국내 중소 패션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8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패션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중소 패션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부터 사회적 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선택하면서 김 여사의 선택이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김 여사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논란 만큼 화제가 되는 것은 김 여사의 패션이다. 과감하고 화려한 색상 매치와 브랜드를 가리지 않는 착장으로 특히 40~50대 여성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환경과 서민친화적인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패션들은 명품과 달리 가격대가 낮아 더더욱 품절 대란을 쉽게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김 여사의 패션을 매번 브랜드와 가격대까지 찾아 소개하는 패션 인플루언서까지 등장했다. 네이버의 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김여사에 대해 14개에 달하는 단독 포스팅을 쓰며 김여사의 의류 패션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출중한 외모와 패션 센스때문인지, 매번 김건희 여사가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입었다하면 가방, 옷, 신발, 운동화 할 것 없이 빠르게 품절되는 사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웃 매치 센스가 좋다”고 평가했다.

성수동 수제화 브랜드 앤서니는 지난 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신은 신발의 브랜드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동안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다. 지금도 당시 김 여사가 신은 것으로 밝혀진 두 켤레의 구두 주문이 폭주하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앤서니 관계자는 “우리가 부탁 드린 것도 아니고, 지난해 몇 켤레 구입해 신은 후 이번엔 연결없이 방문해, 크기가 맞는 것을 추가로 구매해 가셨다”며 “구매 사실이 알려진 당일부터 2~3일 간 10배 이상 방문자 수가 늘었다. 매장 방문이나 주문 수 역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수동 수제화 브랜드 B는 “성수동에서 신발을 샀다는 사실에 우리도 방문객이 늘었다. 해당 기업만큼은 아니어도 득을 봤다”며 “이렇게 관심이 이어지니 감사할 뿐이다. 우리 매장

의 제품도 신었으면 하는 맘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적인 자리에 대통령과 함께 하고, 독자적인 활동도 이어가는 영부인의 패션은 국내외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일으킨다.

데이비드 여백 뉴욕대 교수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미셸 오바마가 입은 옷으로 패션·유통업체의 시가 총액이 27억 달러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관계 없이 영부인의 착장만으로 일어난 주가의 등락을 ‘미셸 오바마 효과’라고 명명했다. 미셸 오바마가 선택한 의류 브랜드는 평균 2.3% 주가가 올랐다. 이는 재키 케네디 등 여타 영부인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착장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만큼 최고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현안과는 별개로 세련된 패션이 각광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의 러브콜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